**게리 예이츠 박사, 12권, 14회, 이스라엘의   
영적 불신앙, 호세아 4-14장, 2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14강, 이스라엘의 영적 불신앙, 호세아서 4-14장, 2부입니다.   
  
호세아서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우리가 레이아웃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의 메시지. 메시지의 구성과 책의 구성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 즉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이 이스라엘의 배도와 이스라엘의 배도를 반영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파트너인 야훼에 대한 불충실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앗수르 위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문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 충격적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것. 책의 나머지 부분인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께 불성실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불성실한 파트너가 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과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식적인 간음죄가 적용되는 일련의 언약 소송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선지자는 여러분이 여호와께 불성실하게 행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임을 백성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희망은 회개와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복되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음행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의를 실천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대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식은 단순히 그들이 행하고 있던 이교의 의식을 증가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대 위에서 그에게 울부짖으며 자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기소는 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주기가 끝날 때마다 회복의 약속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책을 하나로 묶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불충실하게 저지른 네 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간음 혐의는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들에 대한 비난이 심각해졌습니까? 첫째, 그들은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헤세드에 응답하여 언약의 신실함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는 사회적 죄와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을 살펴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종교적 고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소선지자로서 아모스는 사회적 죄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호세아는 종교적인 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세 번째 비난, 그들이 불성실한 아내인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결혼 비유가 호세아서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관련된 우상 숭배, 가나안 신 바알에 대한 그들의 헌신, 여성 다산 여신 숭배 및 여러 이교 의식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땅에 들어올 때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분만을 숭배해야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신명기 13장). 고대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장려하는 도시가 있었다면, 그 도시는 전멸되고 멸절되어야 했습니다.

만일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과 바알들을 따르도록 부추기는 선지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도덕적 메시지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면, 그 정말로 심각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인, 부도덕, 불경건, 우상 숭배 행위가 이스라엘의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신들에게 이끌리고 끊임없이 매력을 느낍니다.

문제이고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부도덕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그들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 땅으로 나온 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뚜렷한 빛이 되어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기는커녕, 결국에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신약성서의 관점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형상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약속의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왜? 왜 이걸 막지 않는 걸까요? 바알 숭배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또한 구약성경이 죄와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는 형상과 거짓 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50인치 TV에 가끔 절을 하는 것 외에는 평소에 형상이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내 차 대시보드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단지 형상과 우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과 이름이 다른 신들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에스겔 14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맞서는 것은 단순히 돌이나 금속으로 형상을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마음에 우상을 쌓고 우상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올무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세우는 모든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헌신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안전과 의미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힘과 노력을 쏟는 것이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 숭배의 배경과 가나안의 모든 숭배 관행을 이해하면, 그들이 결국 여기에 끌린 것은 그들이 우상이나 형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알 숭배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마음을 끌었다. 이제 바알 또는 바알로 알려진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단순히 주님(Lord) 또는 주인(Master)을 의미합니다. 남편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말이 아니지만,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그들의 주님, 왕, 주인으로 섬기는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바알로 언급된 신들의 수 중에서 우리는 때때로 바알을 복수형으로 언급하는데, 이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신들을 지칭하는 용어일 수도 있고 개별적인 표현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일신인 바알을 대표하는 지역 유적지와 성소에 바알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가리트에서 발견된 가나안 문헌과 가나안 서사시와 신화에서 우리는 바알 하닷이라는 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이 누구인지,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여기에 끌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알과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이끌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욕망과 정욕이 종종 우리를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로 이끄는 욕망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오늘. 그러나 바알 하닷은 폭풍의 신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정말로 탁월한 폭풍의 신입니다.

그는 구름을 탄 자라고 불린다. 우리는 바알이 하늘을 가로질러 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고고학에서 보존되고 발견된 유명한 바알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번개를, 다른 손에는 철퇴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구름 위에 서 계십니다. 따라서 비와 폭풍, 천둥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면 천둥은 바알의 목소리를 상징한다는 생각입니다. 바알은 비를 몰고 폭풍을 몰고 오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비옥함은 비에 달려 있으며, 바알은 비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농업 사회와 농업 생산물에 생명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농부 국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을 숭배하려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번영의 약속. 자, 만약 제가 오늘 저만의 종교를 고안하고 게리주의를 생각해내고 싶었다면, 사람들을 그 종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에게 번영을 약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번영의 메시지를 실제로 전파하는 기독교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자체의 복음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기독교 메시지와 기독교인의 삶이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와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돌과 금속의 형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부와 물질적인 축복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에 끌린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는 소비주의와 그들의 소유물, 직업, 직업, 부, 번영에 대한 숭배에 의해 주도되는 오늘날 미국인들의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잃는 것조차 신앙의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예배자들이 이런 우상에 끌린다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보는 대신 , 유사점과 유사점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서사시인 바알(Baal)이나 바알(Baal)에서 우리는 그를 지칭하기 위해 이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바알은 얌(Yam)과 혼돈의 세력을 제압함으로써 왕이 됩니다.

얌(Yam)은 바다의 신이다. 그래서 바알은 요동치는 바다로 대표되는 혼돈의 세력과 전투를 벌입니다. 얌(Yam)은 바다의 신이다.

그의 동맹자는 강의 신 나하르(Nahar)이다. 이러한 혼돈의 세력은 가나안 문헌에서도 로탄이라는 이름의 일곱 머리를 가진 용으로 표현됩니다. 그리하여 바알이 가나안 판테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혼돈의 세력인 이 신들이 다른 신들을 위협할 때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문명을 위협하는 혼돈의 물을 두는 것이 바알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그분은 그 물들을 제자리에 두시고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나안 신들과 가나안 사람들 스스로도 바알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위해 궁전이 건설되고, 이러한 혼돈의 세력을 물리친 후 그는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문헌에도 등장하지만, 결국 이야기의 어느 시점에서 바알은 죽음의 신인 못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알은 비록 이 위대한 왕이고 폭풍의 신이지만 혼돈의 물을 물리치고 정복합니다. 그는 강제로 지하 세계로 내려가게 되며 매년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서사시에서 그는 궁극적으로 그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폭풍의 신이자 구름의 기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바알에게 패하여 해마다 구출되어 저승에서 나와야 하는 신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였다. 농사철을 이해하는 방법. 곡식을 심고 생산하는 기간 동안 땅에는 비옥함이 있었는데, 이는 바알이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면서 가져온 비옥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알이 지하세계로 내려간 때는 겨울이요 모든 것이 죽고 황폐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하세계에서 나왔을 때, 이것은 반복되는 주기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들이 이 신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가 인간이 자연스럽게 숭배하는 것, 번영과 축복, 생계와 생계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농부이고 이러한 작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알 숭배의 이면에 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에게 주고 아낌없이 준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바알을 위해 사용한 은과 금에 바쳤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때를 따라 내 곡식을 도로 취하고 그 시절에 내 포도주를 도로 거두며 그의 하체를 가릴 나의 양털과 삼을 빼앗아 그 애인의 목전에서 그 음란한 것을 드러내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 그 축복을 폭풍의 신 바알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발렌타인데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게에 가서 아내에게 줄 장미를 삽니다.

그리고 아내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옆집 남자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나는 남편만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신앙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교도 신들에게 돌렸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것이고, 그들은 내가 궁극적인 근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여호와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나의 바알이라 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바알 숭배에 대한 모든 생각은 궁극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바알이 그들의 번영과 다산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려는 유혹은 7장 14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얻기 위해 침대 위에서 통곡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뭄과 기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는 대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단순히 자신들의 상처를 입히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교 의식을 증식시킵니다. 그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경쟁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신들이 그들에게 축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는 동기입니다. 음행의 영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13절.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언덕에서 제물을 태우고, 일종의 성적 부도덕을 수반하는 이교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은 이 신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자원을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궁극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쪽 왕국 유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이유의 일부가 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포화되어 있었는지 반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알과 다산의 신인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축복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다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서원한 것을 다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가나안의 다산 여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과 우리 방백들이 행한 것 같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에게 전제를 부어 드리리라 우리가 이 일을 행한 후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형통하며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드리는 일과 그 앞에 전제 붓는 일을 그쳤으므로 모든 것이 부족하여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들은 현실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여,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는 요시야가 와서 이런 개혁을 하고 우리를 돌려보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우리의 아세라와 우상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신들을 섬기고 우리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만일 요시야가 우리를 내버려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을 바쳤더라면, 우리가 다산제사를 지켰더라면 모든 일이 순조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이 우리의 번영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을 거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 문화의 일부가 아니며 이 맥락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값싼 모조품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현실을 갖고 그토록 가짜이고 거짓된 것에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욕망,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욕망에 의해 이 일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들의 문화에 만연한 거짓말에 이끌렸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진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들 주위에 널리 퍼져 있던 문화는 다른 신앙 체계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현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문화의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소유물에 의해 결정된다거나, 인생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부나 우리가 즐기는 즐거움이라는 널리 퍼진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즐거움과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널리 퍼진 문화의 거짓을 믿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전체에 걸쳐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알과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일어날 일 중 하나는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과 구약 문헌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반영하기 위해.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역사적 배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 구약에 대한 더 깊고 완전한 이해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서의 저자들이 하려는 일은 그들이 종종 가나안 사람들의 형상과 믿음과 사상을 취하여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알은 폭풍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왕이십니다.

그는 다산을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혼돈의 세력을 제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본문에서 바알 숭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미지, 사상, 은유, 모티브가 구약성서에서 논쟁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구약이 주변 문화의 이교 신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적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한 모티프를 그들의 지배적인 문화의 일부로 사용하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헌에서는 바알이 구름을 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4절과 다른 구약성경의 구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시는 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가 시편 29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찬송이 원래 바알에 관해 부른 가나안 찬송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구약성경에서 취하여 개정되고 수정되었습니다. 주님에 관한 노래가 됩니다.

그 구절에서는 가나안 문학에서처럼 일곱 번의 주님의 음성이 사용되었고, 서사시에서는 뇌우 중의 천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주님의 일곱 번의 음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29편은 지중해에서 시작되는 뇌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북쪽 부분을 가로질러 이스라엘을 거쳐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폭풍을 관찰할 때 반사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 시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폭풍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힘과 위대함을 반영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야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이 폭풍이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은 바알의 위대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위대함을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이 사폰 산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은 신성하고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시편 48편은 시온산이 사폰의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예루살렘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 웅장하고 강력한 산이라고 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48편은 시온을 우주의 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 결과 시편 46편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맹렬하고 부르짖고 거품을 일으킬 때 혼돈의 물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시편 46편이나 이사야 17, 12~14장에서는 땅의 나라들을 혼돈의 물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얌을 굴복시킨 사람은 바알이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은 여호와이십니다. 야훼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의 물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을 그 자리에 두셨으나, 또한 역사 전반에 걸쳐 혼돈의 세력도 이기셨습니다. 그는 출애굽할 때 바다를 이용하여 애굽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다시 시편 46편에서 시온의 대적들이 혼돈의 물처럼 포효하고 거품이 일 때, 궁극적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복종시키실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성서는 강의 신이나 이러한 신화적 생물이 있다는 신화적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은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신 야훼의 독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문화에 전달되는 이미지와 모티프를 단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시편 74편은 바알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대해 직접적인 논쟁을 벌이는 또 다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주는 옛부터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당신은 물 위에 있는 바다 괴물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당신은 리바이어던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나는 가나안 문헌에서 혼돈의 물의 일부인 바다에 있는 일곱 머리의 용인 로탄을 기억합니다.

리워야단을 물리친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당신께서는 그를 광야의 생물들의 먹이로 주셨습니다. 당신은 샘과 개울을 갈라서 열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을 말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창조의 이미지나 그림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리워야단을 바다에 두어 그와 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은 주님께서 정복하셔야 할 괴물 같은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여 바다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놀아주시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한 학자는 마치 리바이어던이 자신의 고무 오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가나안인들의 신학을 전복시키고 야훼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학을 전복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식 국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그들은 바알이 비를 제공하고 구름을 탄 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 특별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충성을 바치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 바알의 고향 땅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사역하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먹을 것과 기름과 먹을 것과 그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느니라 주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가며 굶어죽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수로보니게 사람, 이 여인,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이는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다스리는 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알 자신도 나방에게 패배하여 지하 세계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바알보다 우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통제하십니다. 이사야 25장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때에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신인 나방이 위대한 삼키는 자로서 한 입술은 별을 향해, 다른 입술은 땅을 향해 뻗어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삼키는 가나안 문헌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승리하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가나안식 표현이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통계는 인상적이지만 , 구약성서는 위대한 삼키는 자가 삼켜질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제안할 수 없었습니다. 바알은 생명의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와 함께 여성 다산 여신 숭배도 있었습니다. 엘과 바알의 배우자인 아세라와 아스달과 아낫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세라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세라 기둥은 이스라엘 종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땅 전체에서 고고학자들은 이 여성 다산 여신의 나체 조각상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 곧 유다 여인들이 이 여인들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녀를 낳을 줄 믿었음이더라.

그들은 다산의 원천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나는 그 근원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믿어야 해요.

다산과 공급에 대한 이 모든 생각과 함께, 이와 함께 따르는 음란하고 부도덕한 다산 의식도 있었습니다. 신성한 매춘 행위가 이스라엘 숭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춘부와의 섹스가 궁극적으로 땅에 풍요를 가져오는 공감 마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러한 신들과 여신들에 대한 숭배가 도입되면서 부도덕이 조장되고 종교적 승인을 받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매춘은 성소에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내가 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사람들을 부유하고 번영하게 만들고 모든 도덕적 제약을 없애는 종교를 홍보할 수 있다면, 하루가 끝날 때까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추종자들을 몇 명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의 매력이자 가나안의 다산 여신 숭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덕적 요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명령과 욕망에 따라 살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도덕과 성적 도착은 종교 행위의 일부로 승인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속이나 돌의 이미지에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쾌락과 부와 이 모든 것에 이끌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시는 방식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능한 가장 깊은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이나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와 가나안 관습에 대한 강한 욕망과 매력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 논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신들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호세아서를 연구한 후 이제 여기에 있는 예언서로 돌아가서 호세아서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바알이 너희를 만족케 하시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었으니 바알에게로 향하였느니라.” 이 반복되는 모티브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바알들과 그들의 거짓 신들과 그들의 거짓 관행, 그리고 사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호세아서의 헛된 메시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당신의 궁극적인 안전의 원천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패한 전략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당신의 삶에서 헌신의 궁극적인 원천이 될 때, 그것은 당신을 궁극적으로 죽음과 비참함으로 이끌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공하실 온전한 종류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러분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에는 헛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로 향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가치함을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심히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했고, 그 대신 결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 변했고, 그 웅덩이는 결코 물을 공급하지도, 그들의 필요도 충족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2장 8절과 9절에서 그들은 이것을 그들에게 제공한 것이 바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4장 10절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리라.

그들은 창녀 짓을 하겠지만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산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제물을 가져오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다산 의식의 일부인 건포도 케이크를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9장 1절과 2절.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말라 다른 민족들처럼 높이지 말라 네가 행음하고 네 하나님을 버렸느니라.

당신께서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품삯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교도의 다산 의식이 있습니다. 타작 마당과 포도주 통이 그들을 먹일 수 없고 새 포도주가 그들에게 떨어지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앗수르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신들이 당신에게 농작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땅은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비를 거두셨던 것처럼 호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앗수르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이다.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알브올에 이르러, 부끄러운 일에 자신을 헌신하였고, 그들이 사랑하던 것과 같이 가증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출산도 없고, 임신도 없고, 임신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8세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이 거짓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그들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건포도 케이크와 다른 제물을 가져오고 이것이 그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산도 없고 임신도 없고 수태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아이를 키울지라도 나는 그들이 아이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아껴줄 것이다. 와, 하나님이 아이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다산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9, 16, 17. 마지막 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상하여 그 뿌리가 말랐도다

아이를 낳아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는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짓 신들과 여신들이 그들에게 농작물과 자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둘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쎄, 그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줄곧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축복의 진정한 원천은 누구입니까?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제공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자신이십니다.

내 말은,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교 문화와 그들 주위에 만연한 문화에 감동을 받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이 이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된 은유 중 일부는 폭풍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 3절과 4절.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자.

그의 외출은 새벽처럼 확실하다. 그분은 소나기와 땅을 적시는 봄비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마치 상쾌한 비와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출처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전략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죄와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어리석음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나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오사 너희에게 의를 비같이 내려주실 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그들에게 의의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물리적 비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끝 부분으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5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배도한 것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그는 레바논의 나무들처럼 뿌리를 내리리라. 그의 뿌리는 퍼질 것이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겠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로다. 그들은 돌아와서 내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그들은 곡식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그들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되리라. 소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잃어가고 있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곡식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출처를 인식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진정한 갈증은 궁극적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거스틴은 마음이 안식을 찾을 때까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찾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 에브라임아, 내가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에게 대답하고 보살피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상록수 편백나무와 같습니다.

나에게서 너의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안전의 근원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헛된 것에 대한 논쟁과 수사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다른 표현 중 하나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불성실한 다른 방식 중 하나는 그들이 바알과 거짓 신들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송아지 신들과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소에서도 여호와께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백성들을 이러한 유형의 배도로 인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너희를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신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형상이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단순히 이 보이지 않는 송아지를 탄 자로 여겨졌고, 송아지는 하나님을 능력과 다산의 신으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이셨는지에 대한 현실성을 감소시켰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로보암이 세워 준 단과 벧엘의 성소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배교하며 살았습니다. 8장 5절과 6절에 사마리아야 내가 네 송아지를 버렸노라 하였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에게 타오르고 있다.

그들은 언제까지 결백할 수 없을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송아지 신은 결국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결국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4장 15절에서 “이스라엘아 네가 행음할지라도 유다는 죄를 당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벧아웬 곧 하나님의 집 곧 벧아웬 곧 무익한 집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도 미혹되어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8세기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관찰하면서 보게 될 것은 충실함을 유지하고 헌신적인 야훼 숭배자들이 있었던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바알을 숭배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모든 일과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야훼에 대한 숭배와 바알에 대한 숭배가 있는 혼합주의적 혼합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주님께 완전히 불명예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골적인 우상 숭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알 숭배와 야훼 숭배가 결합된 혼합주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8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를 조사해 본다면 아마도 바알 숭배자들처럼 여호와를 여자 배우자인 아세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무서운 것 중 하나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 우상을 숭배할 때 여러분이 숭배하는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렉 빌(Greg Beale)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의 성경적 신학에서 이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4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이 완고한 암송아지처럼 완고하다고 어떻게 묘사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넓은 풀밭의 양처럼 먹이실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했습니다.

그를 내버려둬. 술이 다 떨어지면 그들은 음행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에 걸쳐 당신이 예배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완고한 송아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송아지 신처럼 되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10장 11절에 에브라임은 타작하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송아지라 내가 그 아름다운 목을 아끼었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메게 하리니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스스로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완고한 암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멍에를 메워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11장 4절부터 7절, 내가 인자의 줄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하였느니라.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턱의 멍에를 완화시키는 자가 되어 그들을 굽혀 먹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느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나에게서 등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0장 7절, 너희는 너희가 경배하는 것과 같이 되느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호세아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면 여러분은 그 신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송아지 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완고한 암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너희가 벙어리되어 말하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보는 눈도 없고 말하는 입도 없는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도 그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8세기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사회 정의와 폭력에 넘겨진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헌신했던 가나안 신들의 성품을 모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무력과 폭력과 살인으로 나봇의 땅을 빼앗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들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빼앗습니다. 당신을 속박에서 인도하시고, 노예를 돌보시며,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전혀 다른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안 우상숭배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호세아서에는 두 가지 큰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대상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만든다면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을 숭배하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다스처럼 금을 숭배하고 돌리면 무엇을 숭배하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 순수하게 유지하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상기시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일에 실패하고 있음을 깨닫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헌신하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14, 이스라엘의 영적 불신앙, 호세아 4-14장, 2부입니다.